불교유산으로 장애인 전시 서비스 강화

국립중앙박물관 신년기자회견
'국보' 천흥사 동종을 활용해
시 · 청각 장애인 체험관 조성
지난해엔 '오감' 개관해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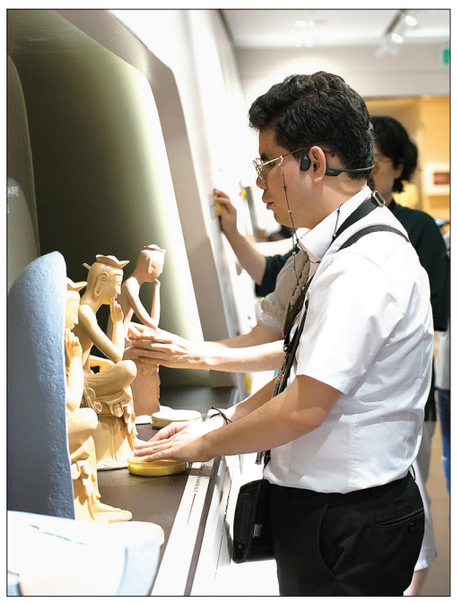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소외지역과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전시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 전시 서비스 강화 사업에 불교문화유산이 활용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1월 24일 교육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2024년을 박물관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소장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소외지역 지원 등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인 등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사업'이다. 문화취약계층 서비스 강화사업은 올해로 2차년도를 맞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교육관에 국보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한 촉각·후각·청각·시각 등 다감각 체험형 전시 학습 공간 '오감'을 개관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두 국보 반가사유상



지난해 조성된 다감각 체험관 '오감'에서 체험하는 사람들. 올해에는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험관이 조성된다. 사진제공=국립중앙박물관

의 형태·재질·제작방식·의미 등을 다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오감'은 장애·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및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상설전시실 3층 조각공예관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천흥사 동종 등 금속공예품을 활용하는 체험 공간으로 범종의 재질, 소리,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윤성용 관장은 "음향, 영상, 촉각 전시물을 활용해 범종의 소리와 형태적 특징을 안내자 없이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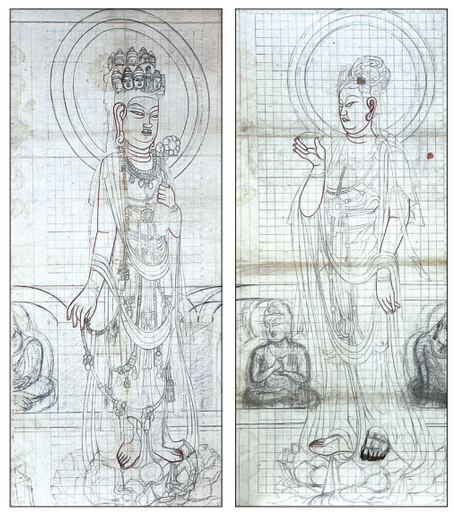
또한 박물관 으뜸홀(로비공간)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형 복합공간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휴게공간,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은 '삶과 함께하는 박물관',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세계로 나아가는 박물관' 이라는 중장기 전략목표 아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인구소멸 위험지역 찾아가는 전시' 개최 △광개토대왕릉비 원석탁본 공개 등 다양한 국내외 문화 소개 △학예인력 전문교육 확대 등 박물관 교육정책 추진 △박물관 소장 황해도 장무이묘 고구려 무덤 출토품 조사 등 분야별 조사연구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윤성용 관장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박물관 관람객 천만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하고 쉬고 갈 수 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생광 화백 불교 작품 불교중앙박물관에 오다

보살상 2점, 청담스님 진영 기증 받아



박생광 화백의 보살상 밑그림.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

한국 수묵채색화의 대가 박생광 화백의 불교 주제 작품들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에 기증됐다.

불교중앙박물관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증식을 열고 박생광 화백의 불교 주제 밑그림 3점을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칠드런(이사장 김윤섭)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기증을 받은 작품은 박생광 화백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불교 주제로 그린 밑그림으로 '보살상'을 그린 2점과 '청담 스님 진영' 1점이다.

'보살상'은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과 문수보살상이 마주보는 구성의 작품으로 세로 2m가 넘는 크기이며, 박생광 화백의 불상 소재 작품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2점의 스케치 화면 구성은 서로 이어진 연필 선묘 작품으로, 여러 점이 이어진 시리즈의 일부가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김윤섭 아이프칠드런 이사장은 "한국 미술의 잠재적 가치를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지로 수십 년 동안 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해온 개인 소장자의 뜻을 이어 불교 주제의 작품 3점을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하게 됐다"고 기증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김윤섭 이사장은 "박생광 화백만큼 한국적인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예가 드물다. 특히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 정신의 요체를 함축적으로 현대미술에 승화시킨 점을 주목한다"라며 "이번 작품은 박생광 화백이 한국불교를 얼마나 진심으로 연구하고 작품화하고자 노력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성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교 정신에서 인연법이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데, 박생광 화백의 불상 그림과 청담 스님의 진영 작품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 모시게 돼 너무나 감회가 깊다"라며 "큰 결심을 내려준 소장자를 비롯해 진행을 맡아준 아이프칠드런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증자 이름을 끝내 밝히길 고사한 작품의 소장자는 대형 스케치 두 점을 기증해 서명하는 날에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과 종정을 지낸 청담 스님(1902~1971)의 진영 밑그림까지 추가로 기증해 의미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중일 기자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 1월 24일 지정 가결
각황전 앞 1주…유명 관광명소

지리산 화엄사 홍매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1월 24일 "화엄사 홍매화가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 자연유산 천연기념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화엄사 홍매화는 각황전 옆에 위치한 1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계절 명소이다. 지정 명칭은 '구례 화엄사 화엄매'이다.

문화재청은 지정 사유에 대해 "기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대 매화(순천 선암사 선암매, 강릉 오죽헌 율곡매, 구례 화엄사 들매화, 장성 백양사 고불매) 중 검붉은 꽃은 화엄사 홍매화 뿐"이라며 "화엄사 홍매화는 3월 초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 화엄매.

검붉은 화색과 두 줄기가 꼬인 수형으로 국민들이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꽃이 피며, 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나무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자연적으로 성장하면서 수목의 줄기나 가지의 생육이 굴곡을 만들면서 위로 또는 밑으로 자라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매화나무들과 비교해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했다.

화엄사는 매년 홍매화를 중심으로 올해로 4회째 홍매화 사진대회 등을 통해 화엄사 홍매화의 경관적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자연은 언제나 소리없이 찾아와 감동을 준다. 지리산 대화엄사 홍매화의 존재와 심미적 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화엄사 홍매화는 해마다 피고 지고를 300여 번을 하는 동안 국민에게 한없는 감동을 가져다줬다. 앞으로 천연기념물이 된 홍매화가 맑고 청아한 기운이 화엄사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엄사는 2024년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제4회 구례화엄사 화엄매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 학자들 한자리서 '부처님 생애' 조명

네팔 룸비니 연구센터서 1월 9~11일 국제학술대회

세계 학자들이 한자리서 부처님 생애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룸비니 국제 연구센터(Lumbini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에서 '아시아 전통과 그 너머의 부처님 생애 이야기'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독일, 스리랑카, 인도, 네팔 등 8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정덕 스님와 황순일 동국대 불교대학장, 김경래 동국대 교수, 김자현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의 관점을 통해 각국에서 해석되고 전달된 부처님 전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됐다. 특히 깨달음을 향한 부처님의 여정에 대한 동아시아적 이해를 형성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차원을 조명해 주목을 받았다.

학술대회 기간에는 카필라바스투와 룸비니 현장 답사도 이뤄졌다. 카필라바스투에서는 로빈 커닝햄(Robin Cunningham) 영국 더럼(Durham)대 고고학과 교수가 직접 안내했다.

대회 개최를 주도한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이번 국제대회는 불교의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차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킨 학술 교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전통 자연치유 대체요법
뇌와 장을 살리는 힐링마사지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우울증 등을 자연치유 하는 쾌뇌장 힐링요법
관리프로그램
쾌장경락마사지 (8만원)
기공치유
성인병관리
심리치유
오장육부 기능회복 (간, 심장, 비장, 폐, 위, 신장)
복부비만 등 복부관리
목, 어깨, 골반, 다리 등 각종 통증관리
스트레스 만성피로
각종 뇌질환(우울증 등) 관리
노화 예방, 장수 회춘 관리
영적치유 만트라명상


약손월드힐링센터 화성지부(향남) 010-7302-5620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경혈자극요법 287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